

태풍 전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

▶ 태풍이 오기 전

● 벼농사

- ▶ 비와 바람이 심할때는 논에 물을 깊이 대주어 태풍이 통과할 때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한다.
- ▶ 산간지의 계단식 논에는 물꼬를 넓게 여러 곳에 만들어서 많은 비가 오더라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.

● 밭작물 · 채소류

- ▶ 콩, 고구마 등 밭작물은 배수구를 다시 한번 정비하여 강우에 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전 정비해 준다.
- ▶ 고추는 지주를 보강하고 비닐 끈 등을 이용하여 쓰러짐 방지한다.

● 과 수

- ▶ 수확기가 된 과실은 서둘러 수확한다.
- ▶ 찢어질 우려가 있는 가지는 유인하여 묶어주고 받침대 설치한다.
- ▶ 과수원의 도로나 경사지의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비닐 부직포 등을 덮어주기 한다.
- ▶ 토양 유실 우려가 있는 과수원은 풀, 볏짚 등을 피복하여 토양유실 방지

● 축 산

- ▶ 보관중인 사료는 높은 곳으로 옮겨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.
- ▶ 가축 분뇨 저장시설과 퇴구비장의 배수구를 점검하여 빗물이 들어가거나 오폐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▶ 고창증 예방을 위하여 젖은 풀이나 부패된 사료 주지 않는다.
- ▶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및 소독약 사전 준비한다.

● 농업시설물 등

- ▶ 시설하우스 과수시설 등 각종 농업시설물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▶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하우스의 문을 닫고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다.
- ▶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하우스 내 골재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피복한 비닐을 찢어 골재만이라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.
- ▶ 축사 지붕과 벽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한다.
- ▶ 축대 보수 및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로 빗물 유입을 방지한다.

▶ 태풍이 지나간 후

● 벼농사

- ▶ 물에 잠긴 벼논은 신속히 물 빼주기를 실시한다.
- ▶ 황숙기에 있는 벼는 가능한 빨리 물을 빼주고 서둘러 수확작업

● 밭작물 · 채소류

- ▶ 붉은 고추는 빨리 따서 다음 고추의 자람을 촉진시키도록 하고, 수확하여 건조 중에 있는 참깨는 비를 맞지 않도록 관리한다.
- ▶ 고추, 참깨 등 쓰러진 포기는 세워 주고 줄 지주 보강한다.
- ▶ 토양 과습시 뿌리의 기능이 약해 양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므로 요소 0.2%액이나 제4종 복비를 뿌려주어 생육 회복 촉진한다.
- ▶ 폭우 및 강풍 피해지역은 주기적 약제 살포로 병해방제
대상 병해충 : 탄저병, 담배나방 등
- ▶ 폭우·강풍·병해충·생리장해 등의 원인으로 포장에 떨어진 열매, 잎, 줄기, 병든 포기 등을 모아서 땅속에 묻거나 불에 태워 전염원을 제거한다.
- ▶ 뿌리가 손상되어 지상부가 시든 경우 열매를 일찍 수확하여 식물체의 착과 부담 경감으로 생육회복을 촉진시켜 준다.

● 과 수

- ▶ 노출된 뿌리는 흙으로 덮어 주고, 유실 매몰된 곳은 신속히 복구하며, 잎 손상이 심할 경우 잎 수에 알맞게 열매를 숙기 작업을 한다.
- ▶ 수확기에 있는 과실이 비를 맞게 되면 당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가능하면 비가 그친 후 3~4일이 지난 다음 수확작업을 한다.
- ▶ 쓰러진 나무는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조지주를 설치 고정하고 수관하부를 멀칭하여 새 뿌리 발생을 촉진한다.
- ▶ 지하부 뿌리 절단 및 손상을 감안하여 지상부의 가지수를 조절한다.
- ▶ 부러진 가지는 기부를 깨끗이 정리하여 보호제를 발라준다.
- ▶ 상처가 난 잎을 통한 제 2차 감염 방지를 위하여 살균제를 살포하고, 수세 회복을 위하여 필요시 요소를 2회 정도 엽면살포한다.

▶ 축 산

- ▶ 물에 잠겼던 축사는 물로 깨끗이 씻어 낸 후 소독을 철저히 해 주고, 각종 기구는 일광소독 작업을 추진한다.
- ▶ 집중호우 후에는 가축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급수기를 수시 청소하고 축사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- ▶ 비바람으로 쓰러진 사료작물은 비가 그친 후 곧바로 베어서 담근먹이로 하고, 후작으로 연맥(귀리), 유채 등 사료작물을 파종한다.
- ▶ 땅이 질고 습한 경사 초지에서는 일정기간 방목을 중지하고 목초피해 및 토양 유실을 방지한다.
- ▶ 축사의 습도 증가는 에너지 소모를 현저히 증가시켜 가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한 통풍 환기 및 수시 분뇨 제거로 유해가스 발생을 방지한다.
- ▶ 고온다습으로 식욕이 떨어지기 쉬우니 고열량사료, 양질의 풀사료를 아침, 저녁 시원할 때 소량씩 자주 급여한다.
- ▶ 비타민·광물질 사료를 별도 보충 급여한다.
- ▶ 오물 확산 방지를 위한 퇴비사 및 분뇨처리장 점검을 실시한다.
- ▶ 전염병 등 질병 발생시 방역기관 신고 및 방역 등 신속한 조치
- ▶ 축사주변 배수 및 소독 철저히 질병 전파를 방지한다.

▶ 농업시설물 등

- ▶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로 신속하게 물빠기를 작업한다.
- ▶ 피복한 비닐 및 피해가 경미한 기자재 등은 오물을 제거하고, 깨끗한 물로 씻어 준다.
- ▶ 복구가 가능한 하우스는 신속히 복구하고, 복구가 불가능한 하우스는 가능한 일찍 철거한다.
- ▶ 시설재배 작물은 별도 육묘상을 설치하여 안전 육묘한다.
- ▶ 양액재배 시설 침관수 시 베드 청소 및 소독 실시 후 양액공급 또는 작물재배
- ▶ 침수 등으로 정화가 불량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즉시 보완한다.
- ▶ 물에 잠겼던 농기계는 전문 수리요원에게 점검을 받은 후 작동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.

